



강북구의회
GYEO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5년 3월 9일
(월요일)

서울포스트 6면

강북구의회 5분 자유발언-유인애의원

문화·교양강좌 통합프로그램 시스템 구축해야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변1동, 변2동, 수유2동, 수유3동)은 지난 3월 3일 개최된 제 18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화·교양강좌 통합

프로그램 개발 및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북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자기계발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13개동 주민센터와 강북문화대학을 비롯한 관내 시립복지관 및 종합복지관 등에서 다양한 교양강좌 프로그

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인기프로그램의 경우 주민들이 하고 싶어도 대기시간이 길고 정원 문제 등으로 인해 수강을 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정보 수집능력이 상대적으로 뒤쳐진 노인연령층의 경우 더욱 수강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이와관련 강북구에서는 문화센터와 동주민센터 및 강북문화대학 등에 개설되어 있는 강좌를 연계통합하여 실시간 접수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들이 강좌접수 하러 올 때 담당자가 실시간 강좌접수현황을 주민들에 안내하여 다른 복지관 등에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프로그램 개발 및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북일보 5면

문화·교양강좌 통합프로그램 개발 및 시스템 구축 필요

유인애의원

(새누리/변1·2동, 수유2·3동)

유인애 의원은 문화교양강좌 통합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발언을 하였다.

유 의원은 "강북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자기계발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13개동 주민센터와 강북문화대학을 비롯한 관내 시립복지관 및 종합복지관 등에서 다양한 교양강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인기 프로그램의 경우 주민들이 하고 싶어도 대기시간이 길고 정원 문제 등으로 인해 수강을 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 수집능력이 상대적으로 뒤쳐진 노인 연령층의 경우 더욱 수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고 밝혔다.

또 "강좌수강생의 대부분이 젊은 층보다는 노령 연령층인 경우가 많은데 수강정원이 마감되면 주민들은 다른 지역 어디에



▲ 유인애 의원.

가서 동일한 프로그램 강좌를 들을지 몰라 답답하고 당황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고 발언하였다.

아울러 유인애 의원은 "열악한 구 재정상황을 판단하여 볼 때 타당성 조사를 통해 정책시행 여부에 대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겠지만 문화·교양강좌 통합프로그램 개

발 및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 하는 것은 구민의 풍요로운 생활과 건강한 삶을 위해 다양하고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매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며 이에 집행부에서 자세한 내용은 검토 후 서면 답변을 요청하였다. (박은주 기자 je1718@naver.com)

“강좌 실시간 접수상황 확인 시스템 구축해야”

◆강북구의회 5분 자유발언- 유인애 의원

강북구 관내 동 주민센터와 각 복지관 등에서 운영중인 다양한 교양강좌 프로그램의 운영방법이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제18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기 프로그램의 경우 주민들이 하고 싶어도 대기시간이 길고 정원문제 등으로 인해 수강을 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우너은 “강북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자기계발을 위해 13개동 주민센터와 강북문화대학을 비롯한 관내 시립복지관 및 종합복지관 등에서 다양한 교양강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강좌수강생의 대부분이 노령연령층인 경우가 많은데 정보 수집능력이 상대적으로 뒤쳐져 더욱 수강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수강정원이 마감되면 주민들은 다른 지역 어디에 가서 동일한 프로그램 강좌를 들을지 몰라 답답하고 당황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임을 감안해 유 의원은 ‘문화센터와 동주민센터 및 강북문화대학 등에 개설되어있는 강좌를 연계·통합하여 실시간



접수 상황을 확인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주민들이 강좌를 접수하러 올 때 담당자가 실시간 강좌접수현황을 주민들에 안내하여 다른 복지관 등에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 편의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유인애 의원은 “열악한 구 재정상황을 판단하여 볼 때 타당성 조사를 통해 정책 시행 여부에 대하여 신중하게 판단되어야겠지만 문화·교양강좌 통합프로그램 개발 및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하는 것은 구민의 풍요로운 생활과 건강한 삶을 위해 다양하고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매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통해 정책 시행 여부에 대하여 신중하게 판단되어야겠지만 문화·교양강좌 통합프로그램 개발 및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하는 것은 구민의 풍요로운 생활과 건강한 삶을 위해 다양하고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매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